



동화사 봉서루 뒤로 팔공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다.

최연의 산 이야기 <31> 팔공산 2

팔공산 골골마다 부처님의 향기 가득하구나

팔공산(八公山)은 '영험(靈驗)한 신산(神山)'이라서 그런지 그 넓은 품에 기대어 들어선 사찰과 불상과 탑들이 골짜기와 능선에 지천에 가득하다. 팔공산 안에 현재 남아 있는 사찰과 암자가 무려 스넉 곳이나 되고 그곳에 소중하게 갈무리되어 전해오는 문화재도 100여점이나 된다.

팔공산의 서쪽 초입에 들어서 있는 송림사(松林寺)는 우리나라에 다섯 기만 남아 있는 고려 전탑 중 하나로 의젓한 자태를 뽐내며 서있고, 남쪽 자락에는 조선시대 원당사찰(願堂寺刹)이었던 과계사(杷溪寺), 초조대장경(初彫大藏經)을 보관했던 부인사(符仁寺), 지장신앙의 중심지인 북지장사(北地藏寺), 금산사와 범주사와 더불어 법상종(法相宗) 3대 사찰 중의 하나인 동화사(桐華寺)가 자리잡고 있다. 동쪽 골짜기에는 팔공산 약사신앙(藥師信仰)을 대표하며 속칭 '갓바위 부처님'으로 불리는 관봉석조여래좌상(冠峰石造如來坐像)이 근엄하게 앉아 있다. 동쪽 기슭에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가 다섯 점이나 남아 있는 은해사(銀海寺)와 그곳에 팔린 백흥암, 운부암, 거조암 등 산내암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백흥암에서는 절집다운 조용하고 조촐하고 정갈한 체취를 맞볼 수 있고, 운부암에서는 연암박지원의 손자인 박규수의 글씨를 볼 수 있고, 거조암에서는 수덕사 대웅전의 맥을 잇는 백제계 고려건축물인 영산전(靈山殿)의 빼어난 자태와 그 안에 모셔진 후불탱화와 오백나한상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게 될 것이다. 이들 사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누각(樓閣)을 아래로 통과하여 계단을 올라서면 정면 한단 높은 곳에 법당(法堂)이 있고 좌우로는 승당(僧堂)이 자리잡는 산지중정형(山地中庭形)의 가람배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팔공산은 한국불교의 약사신앙의 총본산이다. 동화사 입구의 마애여래좌상, 관봉석조여래좌상, 비로봉 마애약사여래좌상, 삼성암터 마애약사여래입상, 불굴사 석조약사여래입상, 동화사 통일약사대불 등이 약사여래이거나 그렇게 신앙되어온 불상들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한곳에 약사여래불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듯 팔공산은 경주 남산에 버금가는 불교의 성지인 것이다. 그래서 긴 세월을 두고 많은 중생들이 팔공산에 들어 신산스러운 삶의 율이들을 거뜬히 풀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다.

팔공산의 품속은 아니지만 북쪽으로 이어진 산줄기의 한 자락에는 제2석굴암이라고도 부르는 군위 삼존석굴(三尊石窟)과 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곳이며 입적하신 곳이기도 한 인각사(麟角寺)가 자리잡고 있다. 특히 군위 삼존석굴은 천연석굴에 본존불은 좌대에 앉은 좌상이고, 좌우 협시불은 입상으로 모셨다. 이러한 양식은 자연암석에 새긴 마애불, 천연석굴, 인공석굴로 이어지는 석굴사원의 계보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팔공산에 안겨 있는 많은 사찰들 중에서 마땅 격으로 가장 큰 사찰은 동화사이다. 동화사는 후삼국시대에 견훤

세력과 밀착되어 있는 백제계 법상종 사찰로서 신라영토 안에서 견훤 세력의 근거지였다.

은해사 입구에서 견훤의 군사들과 맞붙은 왕건의 군사들은 대패하여 퇴각하다 팔공산 남쪽 동화사 입구에서 신승경이 이끄는 군사와 합세하여 후백제군과 다시 한번 일대 접전을 벌였는데 고려군은 1만여 명이 전멸하고 왕건은 자신의 옷을 입고 분전하다가 전사한 신승경과 김낙의 도읍으로 간신히 목숨만 구한 채 절명당을 썼다. 이 싸움이 후삼국 통일전쟁의 3대 전투 중의 하나인 동수대전이다. 동수대전에서 후백제군의 완전한 승리는 동수 또는 동사(桐寺)로 불리던 지금의 동화사가 후백제군의 근거지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이때 장렬히 전사한 고려의 두 장수를 애도하는 노래가 향가(鄕歌)로 전해지고 있는데 고려어종이 지은 '도이장가(悼二將歌)'이다.

임을 완전하게 하신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치고
낮은 값지만 내려주신 벼슬이 또 대단했구나
바라다보면 알 것이다
그때의 두공신이어 이미 오래되었으나
그 자취는 지금까지 나타나는구나
■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새 두 마리

1. 버스 안에서

영월 행 버스를 탔다. 구불구불 길을 따라 흐르는 강줄기에 눈길을 주고 앉았는데 뒷 좌석에서 새소리가 들린다. 버스 안에 무슨 새소리인가? 흠칫 뒤를 바라보니 남쪽나라 어딘가에서 온 사람같이 분명한 여자 둘이 앉아 쉬지 않고 무슨 애간가를 주고받고 있다. 얼른 눈길을 원위치로 돌리고 두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입안에서 구르며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내 귀에 닿는 동안에도 동그라미 울림을 멈추지 않았다. 포르륵 방울처럼 구르는 소리들이 내 귀를 즐겁게 했다.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 왔던 또 다른 어떤 사연을 간직했던, 남쪽의 먼 나라로부터 날아온 새 두 마리가 버스 안을 가볍게 날아다니며 지저귀는 한낮의 버스 안에 내가 있었다. 휘휘 휘늘어지며 흐르는 남한강도 어느 때보다 여유롭게 반짝이며 흘렀다. 구르는 버스가 오늘 따라 가볍게 가볍게 날아가는 듯 나아갔다.

2. 기차 안에서

정선에 갔다가 오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부부와 두 아이가 있었다. 기차를 타기 전, 역전의 소나무와 안내판 앞에서 아이들을 안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었다. 아이들은 쌍둥이가 분명해보였다. 서너 살쯤 됐을까? 뛰는 동작이 구르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이었다. 마냥 웃기만 하는 얼굴과 '해해해해' 웃음소리가 객차 안을 날아다녔다.

한 애는 엄마 품, 한 애는 아빠 품에 안겨 재재거리던 아이들이 입을 맞춰 노래를 불렀다.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똥똥해, 엄마 곰은 날씬해..."

새 두 마리가 지저귀고 있었다. 때구르 때구르 구르는 소리가 들기 좋았다. 어둠이 내리는 차창 밖으로 눈길을 두고 새소리를 들었다. 스쳐가는 강물과 산등성이 위로 작은 새들이 날고 있었다.

"애들 조용히 좀 시키세요. 잠을 못 자겠네."
피곤해서 잠에 들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모양이다.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소리가 아이들의 노래를 끊었다.

"뭐가 시끄럽다고 그래요. 아직 잘 시간도 아니구만."
아이들의 아빠가 아이를 끌어안으며 대꾸했다.

새 두 마리가 지저귀며 일으키던 가벼운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으며 객차 안은 희뿌연 스모그가 가득한 도시의 어느 골목길로 다가왔다. 어느새 짙어진 창밖의 어둠이 객차 안으로 파고들었다.

아이들의 노래는 더 이상 울려나오지 않았다. 열차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와 객차의 연결 부위에서 빠져나오는 마찰음의 뿔뿔거림만이 뿌연 실내등 빛 속에서 맴돌며 사 람들 머리와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3. 집에서

아들이 영무새를 기르고 싶다고 말했다. 아내와 나는 반대했다. 창밖을 바라보기만 해도 새들이 무리로 날아다니는 걸 볼 수 있는데 굳이 새를 기를 필요가 있는냐는 것이 아내와 나의 생각이었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이 집 주위에 날렸으니 그냥 바라보면 좋지 않겠냐며 아이를 설득했다. 새들은 저렇게 날아다니며 살아야 한다고, 엄마 아빠는 방 안에서 동물을 키우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살아있는 짐승을 돌보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도 아니라며 누누이 말했으나 아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았다.

새 두 마리가 거의 비위둔 상태로 있었던 뒷방의 공간을 차지했다. 아들은 학교 가기 전에 뒷방에 들러서 새들을 보고, 학교 갔다가 와서 또 보고 한다. 새들을 보며 한 시간이 넘게 있기도 한다. 방문을 닫고 새장 속의 새를 꺼내 손 위에 놓고 모이를 먹이기도 한다. 택배로 배달된 지 보름 정도가 지나가자 새장 바닥 구석에 머리를 박고 '깨깨깨' 투박한 소리를 내며 사람을 피하던 노란 암컷도 화에 앉아 파란 수컷과 함께 놀면서 정상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이는 새장 속에 그네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바닥에서 뽀까지 오르내리는 줄을 매어주기도 했다.

새의 소리가 들린다. 새장을 벗어나 방을 벗어나 마당까지. 영무새 한 쌍의 소리가 미칠 수 있는 세계 속에 나도 있다.

■ 유승도 (시인)

지리산 돼지감자로 만든 **판매!**
"지리산 야생국우차"

자연이 만든 인슐린 **돼지감자란?**
당뇨병, 류마티스, 골절, 타박상, 해열, 지열, 비만증, 다이어트, 변비에 효과가 있는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우는 이눌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눌린'은 칼로리가 없으며, 위에서 소화가 되지 않아 장으로 내려가므로 혈당이나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당뇨환자**에게 아주 좋습니다.

- 단 음식을 먹을 때 신경쓰시고 조절하셔야 하는 분
- 식이섬유 섭취 및 몸매관리를 원하실 때
-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몸이 뜨끈뜨끈 해지시는 분
- 부모님 선물로 최고, 어린이 비만치료를 좋습니다.

돼지감자차 판매 문의 **남원 선원사**
TEL 063)631-0108 FAX 063)625-2946
농협 301-0041-7701-11(지리산 청소년 예술제)

농협농자 년거치 4년분할상환
농협농자저장은행

고객만족 초절전형 기능 맞춤형
농작물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저온냉장 · 냉동고!!

▲1~20평 까지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주)한진산업 HP 011-673-2623

성지순례 및 문화탐방 전문여행사 **파초여행주식회사**

신묘년 새해맞이 인도성지순례
영혼을 일깨우는 여정, 성지순례

우리 것, 남의 것 치우침이 없는 마음으로 순례코자 합니다
함께 걸으며 마음을 밝힐 뜻 있는
도반들의 많은 동참을 기대합니다

<p>제 1 차 : 부처님 8대성지 순례 일 정 : 2011.1.6 ~ 1.20 (15일간) 방문지역 : 룸바이, 엘도라, 아진타, 산치, 아그라, 삼카시아, 부다가야, 사르나트, 바라나시, 라즈기르, 나란다, 바이살리, 쿠시나가르, 기원정사, 룸비니, 포커라, 카트만두, 파탄 등 동참금 : 2,950,000원</p>	<p>제 2 차 : 불교성지와 인도문화 답사 일 정 : 2011.2.10 ~ 2.22 (13일간) 방문지역 : 데리, 자이푸르, 아그라, 키주리호, 부다가야, 사르나트, 바라나시, 라즈기르, 나란다, 바이살리, 쿠시나가르, 기원정사, 아요디아 등 동참금 : 2,900,000원</p>
---	---

■ 본행사는 달오선원과 존다큐영상기획사가 함께합니다

TEL : 051)808-7370 / 070-7721-0089 [인도, 중국, 티벳, 미얀마, 스리랑카, 부탄]